

〈水文氣象 심포지움〉

治水防災對策에 關한 檢討

金 治 弘*

水文學會와 氣象學會 共同主催로 開催된 今般심포지움은 여러가지로 큰 意義를 갖어왔다. 即 專問의 로서 相異하나 一脈相通하는 部問에서는 共同關心分野에 對하여 忌憚없이 意見을 發表한다는것은 學問의 發展을 가져오는 契機가 되기 때문이다.

治水防災對策에 關한 討論者中 中央觀象臺予報官인 申鉉鎮氏가 말 하듯이 氣象學的인 立場에서 水文氣象資料를 爲한 觀測網의 整備및 統一된 系統으로 統轄機構가 必要하다는것을 同感하는바이다. 또한 水文資料分析에 關해서는 氣象學會에서도 더욱 깊이 研究할 必要가 있다고 말 한것은 相當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治水防災對策에 있어 重要한 部位을 占有하는 予報가 그適中率이 未洽한것은 將次의 研究에 期待된다고 말 하고있다. 그리고 50 mm/hr 의 降雨強度에 對해 都市에서 洪水被害를 가져오는것에는 問題點이 있지 않는거라고 治水對策의 不備를 指摘하였다.

한편 서울大學校의 鮮千仲皓教授가 討論한것中 가장 重要한것은 發表者가 提示한 綜合治水對策은 가장 바람직한것이지만 實際問題로서 어느 深度까지 이를 遂行 할 수 있는가가 問題가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를 遂行 할 수 있는 專門人의 養成이 先決問題이며 새로운 技術導入으로 治水防災의 論理的인 科學化가 時急하다고 말하였다.

以上의 討論者들의 發言에 부쳐서 몇가지 附言하고 자 한다.

治水防災에 關하여 行政을 맡고있는 河川管理廳의 技術的側面의 強化가 무엇보다 急先務라고 말 할 수 있다. 近來에 와서는 水資源을 다루는 人力이 極度로 不足하며, 여기에 새마을 運動의 一環으로 推進한 築堤 工事, 橋梁工事등의 不實이 가져온 被害를 想起해보면 技術不在의 河川管理業務가 얼마나 많은 損害를 가져왔는가 짐작하고도 남을것이다. 治水防災對策樹立을 立案되었다고 하여 그것의 實踐까지는 許多한 予算이 所要되며 河川管理廳立場에서는 治水利水共히 解決하여야 하기때문에 여기에는 깊은 專問的인 知識을 要

求하게되기때문에 卓上空論은 아무 所用이 없는것이다. 近來에 와서는 集中豪雨라는 氣象異變으로 都市河川에 問題가 많이 發生하고 있는 形便에 있다. 즉 一般의 自然河川과 區別해서 都市河川이라고 하는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다. 그것은 都市의 構造와 機能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變遷해 가는가를 充分히 理解하여야 되지 만 物理的으로는 單位河川길이當 매달린人口가 많기 때문에 治水에도 利水에도 重要視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이러한 河川이야말로 「河川은 우리의것」이라는 意識을 높여야 되는데도 不拘하고 現實的으로는 그것과는 反對로 被害意識은 先行하든지 無責任, 無關心여서 利用者, 管理者가 같은 意識으로 都市河川을 追求하고 있지 않다. 都市河川이 갖는 問題點이 많아 即 流出量의 增加와 對策, 低地部被害의 防禦, 汚濁에 關한 問題, 開發과 調整, 河川環境의 向上등 多方面으로 問題가 發生하고 있다. 이것들은 所謂 都市計劃을 健全하게 遂行하기 爲해 綜合課題로서 社會資本을 背景으로 對處 하여야 할 問題이지만 이것과 함께 河川은 日常的으로 물의 흐름이 存在하고 있으므로 自然現象과의 應答性을 더욱 깊이 注目하는것이 必要할 것이다. 즉 都市의 整備, 開發行爲와 水文水理應答과는 調和가 取해져야 하는 山地河川과 다른 都市河川特有의 調和가 正確하게 判斷되어야 할것이다. 特히 既히 窮地에 물린 平衡을 잃은 都市河川과 周邊開發이 이루어지는 또한 이루어질 地域에서는 이러한 檢討가 큰 問題가 될것이다. 한편으로는 河川의 水理學的機能을 尊重하고 都市의 機能을 有效하게 發展시키고 다른便에서는 河川의 自然性을 尊重하므로써 地域的으로 그妥協點을 찾아내는것이 都市河川의 理想型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住民의 對河川意識, 社會資本과 技術 河川의 自然應答이 三者가 基本的인 資料가 될것이다. 이러한 一聯의 思潮를 온 사람에게 認識시키자면 專問技術者의 養成과 啓蒙이 必要하게 된다.

以上 簡單히 治水防災對策論에 對하여 意見을 말하고 끝맺음을 하는바이다.

* 本學會 編輯理事 成均館大學校 理工大學 副教授 技術士